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6권 2호 (2016년 12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플  
라  
자

##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mailto:multiculture@daegu.ac.kr)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화수, 노성향, 이민경, 이용승, 이희영,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용승(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류선영(강릉원주대), 박계영(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고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염미경(제주대), 이민경(대구대), 이소영(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덕성여대), 장혜진(대구대),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Akiko Hayashi(Meiji University), Ratih Pratiwi Anwar(Universitas Gadjah Mada, Yogyakarta)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6년 제6권 2호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2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 논문

---

〈특집: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과 학습 경험〉

프레이리(P. Freire)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활용한 실천적 다문화교수법 구상 /

배영주 1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과제 / 임정수 25

다문화 학습자 통사적 복잡성 측정법에 대한 현황과 과제 / 김명광 47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유형과 외국인 접촉 경험에 따른 차이 /  
강운선 75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연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윤선희 · 김연희 94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  
윤향희 127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 분석—‘행위’와 ‘정체성’ 의미를 중심으로— /  
이화숙 · 원순옥 150

## 서평

---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김희강 외, 2016년, 알피) / 김동현 179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2호를 펴내면서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정착과정은 우리 사회의 현실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부문에 새로운 연구주제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양한 전공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국제적 인구이동과 새로운 지역에서의 정착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다규모적(즉 지구적, 국가적, 국지적) 영향은 그 자체로서 사회공간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제들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학문 분야들은 예로 인구 이동 자체를 연구 주제로 하는 인구학이나 인류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과정 및 그 결과의 각 측면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연구, 그리고 이들의 이동 및 정착 생활과정에서 전개되는 제반 현상들의 해당 분야들을 다루는 법학, 복지, 교육학, 정책학, 이러한 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측면을 다루는 지리학과 역사학, 나아가 이에 내재된 규범이나 윤리, 또는 정서와 정체성 등과 관련된 철학, 윤리학, 문화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다.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연구자들이 이와 같이 ‘다문화 연구 열풍’을 일으킴에 따라, 이들의 연구 성과물들도 지난 20년 사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의 학술지들에서도 매년 많은 관련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와 대학 연구소들도 설립되고 이들이 출간하는 여러 학술지들도 새롭게 창간되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 학술지들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가 되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연구의 양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체계적인 심사와 편집과정을 통해 그 형식과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본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도 2016년 한국연구재단이 심사·선정하는 등재후보지가 됨에 따

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학술 정보들을 소통할 수 있는 학문적 장이 되었다.

〈현대사회와 다문화〉가 등재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그 동안 등재후보지가 아닌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게재해 주신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문 한편이라도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연구 업적물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많은 필자들이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해 주셨다. 또한 등재(후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훌륭한 학술지를 편집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교내·외 나아가 국내·외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솔직히 편집위원들은 이중, 삼중의 고역을 맡아주셨다. 바쁜 시간에도 매달 개최한 편집위원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변 연구자들에게 논문 투고를 독려하며, 빈번히 심사도 맡았으며, 때로는 연구 논문이나 서평을 집필하여 투고하는 부담을 맡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를 맡아 묵묵히 일을 처리해 준 편집위원회 이교일 간사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이번 호는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과 학습 경험〉을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 4편의 특집 논문들 가운데, 2편의 논문, 즉 배영주와 임정수의 논문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계기로 이에 관한 실천적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배영주의 연구는 프레이리(P. Freire)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천적 다문화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이 특정 문화 내용이나 다문화화적 가치에 대한 단순한 전달이나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학술자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학습자 실천력 배양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론이 다문화교육의 맥락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다문화교육의 핵심이 변화된 문화 지형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야 할 학습자들의 삶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수방법의 고안을 시도”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임정수의 연구는 최근 이주민의 급속한 유입으로 한국 사회의 종교가 더욱 복잡하게 분포하게 되었음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종교적 측면에서는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도 안정된 상태였지만, 최근 사회 여론 및 공론의 장에 종교적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의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도 일정하게 규정한다. 또한 세계적 종교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의 만남은 단기간에 혼합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 의하면, “기존에 학교 교육에서는 종교를 개인 심성 함양을 위한 주제에 한정시키거나 종교 갈등의 문제를 세계사적 문제나 해외의 사안으로만 보는 관점이 주”가 되었지만, “다문화시대의 시민교육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의 삶에서 차이에 대한 관용과 공존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의 문제를 시민적 삶의 이슈로 다루고 종교적 관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집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다른 2편의 논문에서, 김명광의 연구는 다문화 학습자들이 느끼는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통사적 복잡성”이란 ‘문장으로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가운데 특히 세 가지 유형의 측정법에 대하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강운선의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연령, 성별, 외국인 친구,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 해외방문 경험, 그리고 교환학생 경험 등의 변인이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밝히려 한다. 이 두 편의 논문은 다문화 시민교육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느끼는 통사적 복잡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특정 경험을 가진 대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 언어의 학습이나 다문화적 접촉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집 논문들 외에도 윤선희·김연희의 논문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지만 그 동안 거의 간과되어져 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행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출산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그 영향 정도를 확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행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하다고 하겠다. 또한 윤향희의 논문은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따라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 상태가 됨에 따라 초래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출입국관리법이 다변화된 이민행정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이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 논문인 이화숙·원순옥의 연구는 ‘북한에서 온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을 행위와 정체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들은 1천 여편의 학술논문 제목에서 ‘북한에서 온 집단’을 지칭하기 위하여 모두 121종의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명칭들은 연구자들이 매우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특히 이 명칭들은 2000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성별과 연령, 행위, 정체성 등을 내포하는 어휘가 추가되어 복합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명칭”을 구성하는 어휘 중에는 행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많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는 시기별로 사용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이주’,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주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의 객관성과 현재성을 고려하여 ‘북한이주주민’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김희강 외 저, 한국다문화주의 비판(2016, 엘피)에 관한 김동현의 서평은 이 저서에 관한 단순한 소개 서평이 아니라 꼼꼼한 독해에 바탕을 둔 심층 서평이라 할 수 있다. 서평의 대상이 된 저서는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매체학, 언어학, 문학, 번역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수록한 것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책 자체를 편집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 책을 한 연구자가 심층적으로 서평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 서평은 이 책이 가지는 몇몇 단점들도 지적하고 있다. 예로, 이 책이 제목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을 위한 것이지만, 서평자는 “이 책에서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이 어느 정도나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서술한다. 예로, “김리카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주의 정책이 비판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권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 논의도 한국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 양상)에 대한 포괄적 고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구성원권’과 ‘주민권’은 언제쯤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적 시민권’은 과연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물음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현대사회와 다문화〉의 편집위원들은 등재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알찬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실 사회복지학, 정치학, 사회학, 지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에 속해 있는 편집위원들이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노력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본 학술지는 다문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분야들 간 연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연구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담론을 생산하고 재구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위원들의 이러한 다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기대한다.

2016년 12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